

Vol.  
16

소식지 + 2018.3.30

## 01 이슈공감

## CONTENTS

##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

## 02 연구소 소식

##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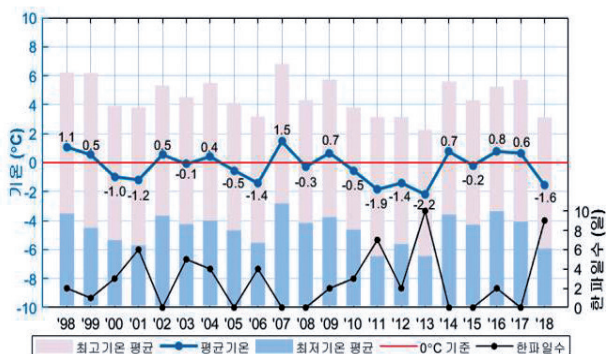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지난겨울은 정말 추웠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sinslee@cn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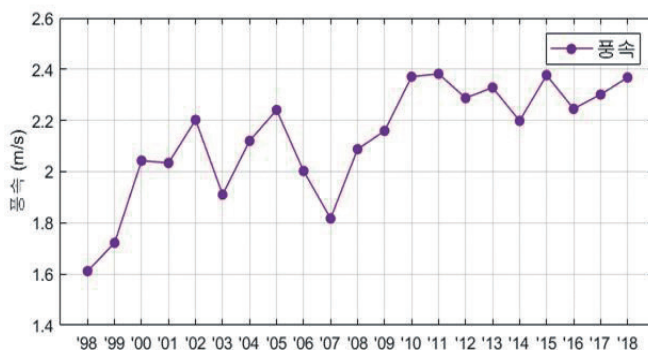
지난겨울은 최강한파로 불릴 만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사망자수가 1983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고령층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겨울은 강추위와 함께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사망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기후변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충청남도의 지난겨울은 정말 추웠을까?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겨울(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3개월)의 평균기온은  $-1.6^{\circ}\text{C}$ 로 1998년부터 21년 기간 중 3위에 해당하는 추위였으며, 평균최고기온은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2013년 다음으로 낮았다. 한파일수도 9일로 2013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기온이 낮다는 사실보다 체감온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체감온도에 영향을 주는 풍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는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평년보다는 겨울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발생빈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금년부터 수립 예정인 시·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극한기상 적응력 향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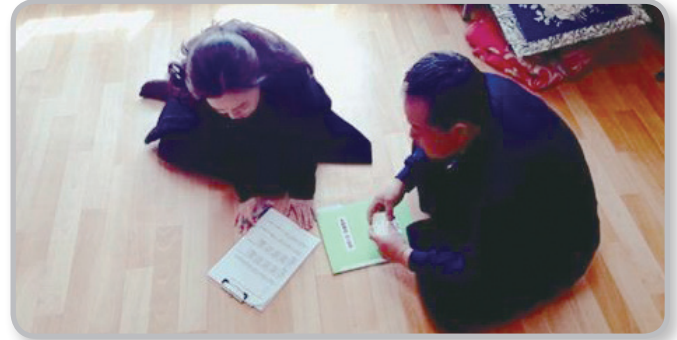
21년간 충남지역 동계기간 기온변화



21년간 충남지역 동계기간 풍속변화

01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협의체 세미나

지난 3월 15일, 16일 양일간 충청남도, (재)국제기후환경센터(광주),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강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인천발전연구원) 등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협의체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및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완화) 관련 추진전략·사례 등의 공유와 효과적인 지자체 정책대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기후변화 선도 광역지자체로의 위상에 기여하겠습니다.

02 대산공단지역 지역주민 대상  
대면설문조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일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용역'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여건 파악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대산을 소재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방식의 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 내 환경현안 개선 및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예정된 연구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03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개소 3주년 기념식 및 간담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연구소 개소(2015년 3월 27일) 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년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충남연구원 및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충청남도청 및 대전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기후·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원방안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당면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04 고평도 갯벌생태계복원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자문회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수행중인 고평도 갯벌생태계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상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계획수립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적 협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산 고평도 갯벌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복원·관리계획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주요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윤 종 주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 영향조사	이 상 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이 상 신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평가 연구	신 우 석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이행평가	김 영 일
서산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김 홍 수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윤 종 주
2017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 정 호

## • 연구소개 /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내 폐염전, 폐양식장 및 유수지가 방치되면서 해충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변지역에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생태계 복원을 통한 갯벌의 건강성 회복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1940년대 고파도 내측에 위치한 갯벌을 매립하여 염전으로 활용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양어장으로 사용하다 현재 방치되어 있다.

갯벌의 가치는 염전이나 일반 토지로 활용의 경우보다 최대 1,000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방치부지에 대한 생산성이 높은 갯벌로의 복원을 통해 어족자원을 증진시키는 1차 목표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가치증진을 통한 생태관광 등 6차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2022년 복원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7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